

‘LED 전자게시대’ 시범 운영 “해외여행 시 호흡기 감염병 주의하세요”

전주시, 불법광고물 난립 예방 위해 서신동 통일광장사거리에 설치

전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불법광고물 난립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LED 전자게시대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옥외광고 수익금 활용 지자체 지원사업의 일환인 '2024년 공공 전자게시대 등 확충 지원사업'에 선정돼 지난해 12월 유동인구와 차량 통행량이 많은 완산구 롯데백화점 인근 통일광장사거리에 전자게시대를 설치했다.

시는 위탁설치 전 시스템 적용 및 실증 확인을 통한 시스템 안정을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전자게시대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시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시정 홍보사항이 표출되고 있다.

시는 완산구 LED 전자게시대를 시범 운영하는 한편, 을 상반기 중 덕진구에도 전자게시대를 확충한 후 하반기에 위탁 운영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옥외광고 수익금 활용 지자체 지원사업의 일환인 '2024년 공공 전자게시대 등 확충 지원사업'에 선정돼 지난해 12월 유동인구와 차량 통행량이 많은 완산구 롯데백화점 인근 통일광장사거리에 전자게시대를 설치했다.

위탁 운영 시에는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홍보, 공공목적 홍보내용 등이 표출될 예정이다.

김성수 전주시 건축과장은 "LED 전자게시대 운영으로 불법광고물 난립 방지 및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홍보

기회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옥외광고 인프라 강화를 통해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의회는 이달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025년도 첫 회기인 제417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전주시의회, 을사년 첫 임시회 개최

12~19일 현안 5분 자유발언 · 시정업무보고 · 안전 처리

전주시의회(의장 남관우)는 이달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025년도 첫 회기인 제417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현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2025년도 시정업무보고와 각종 민생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12일 1차 본회의에서 새해 첫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최지은 의원 등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현안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집행기관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촉구한다.

이번 제417회 임시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실국의 업무 보고를 통해 전주시가 추진해야 할 각종 시책과 사업들을 살피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각종 조례안, 동의안 등을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9일 2차 본회

의에서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남관우 의장은 "2025년은 우리 전주의 미래 향방을 결정하고 결실을 얻는 아주 중요한 시기다"며 "집행부와 의회는 서로 보완하고 견제하며 제 역할을 다해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주시의회는 정례회 2회, 임시회 7회를 총 9회, 98일의 일정으로 금년도 회기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보건소, 예방 위해 개인위생 수칙 준수 당부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가 겨울 방학을 맞아 해외여행을 떠나는 시민들에게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10일 전주시보건소와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플루엔자와 홍역 등이 유행하고, 해외여행을 다녀온 여행객이 홍역에 확진되는 등 해외 유입 감염병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보건소는 해외여행 전에는 질병관리청 '해외감염병 NOW' 누리집

에서 국가별 주의해야 할 감염병 정보와 예방 백신이 있는 감염병을 확인하고 예방약과 예방 물품을 챙길 것을 당부했다. 또, 필요한 예방접종이 있다면 최소 여행 2주 전에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좋다.

특히 호흡기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행 중 사람이 많은 여행지에서 마스크 착용하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기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등의 예방수칙을 지켜야 한다. 또 음식은 반드시 익혀 먹고, 생수나 끓인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

여행 후 입국 시에는 발열과 기침, 두통, 인후통 등 호흡기 감염병 주요 증상이 있다면 즉시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거주지 도착 후 증상이 나타난 경우는 주변 접촉을 최소화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을 알려야 한다.

이에 대해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겨울방학 동안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려면 출국 전 필요한 백신을 접종하고 여행 중 마스크 착용 등으로 안전한 여행을 하길 바란다"면서 "일상생활에서도 실내 환기하기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5대 예방수칙을 준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가족센터, 외국인 정착 돕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개강

한국어 교육 강화로 원활한 지역사회 적응 지원

전주시가족센터(센터장 이해경)는 2월부터 외국인의 원활한 정착을 돕기 위한 초기 정착 한국어 교육프로그램인 1학기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은 다양한 문화 및 언어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원활하게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1학기에는 △0단계 과정(2월 3일 개강) △1단계 과정(2월 17일 개강) △2단계 과정(2월 6일 개강) △4단계 과정(2월 5일 개강) 등이 진행되며, 각 과정은 단계별 평가를 통해 승

급할 수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0단계(15시간), 1~4단계(각 100시간), 5단계 기본과정(70시간), 5단계 심화 과정(30시간)으로 구성돼 있으며,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센터는 이를 통해 외국인들이 실질적으로 일상생활과 취업, 사회활동에서의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전주시가족센터는 올해부터 기존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해 가족 유형에 상관없이 전주시민 누구나 이용

할 수 있도록 운영되며,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오는 2029년까지 위탁 운영을 맡는다.

전주시가족센터는 이번 교육에 이어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한국어 교육 및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전주시가족센터를 통해 한국어 수업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이해경 전주시가족센터장은 "외국인 주민들이 한국어를 익히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도 외국인과의 지역주민이 서로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안전사고 예방 위한 고드름 제거 작업 실시

전주완산소방서, 낙하 우려 신고 받고 신속 제거

전주완산소방서(서장 박덕규)는 지난 주말 겨울철 고드름 낙하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 출동하여 고드름 제거 작업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옥마을 및 평화동 소재 상가 등 높은 상가 건물 처마 끝에 달린 고드름이 낙하할 우려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차가 출동하여 안전장비를 동원해 신속하게 제거 작업을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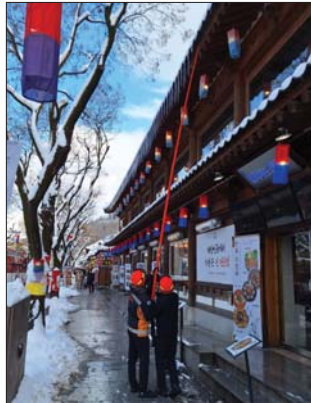
특히 한옥마을은 찾는 사람들이 많은 관광지로서 건물에서 떨어지는 고드름은 지나가는 행인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제거 작업

이 요구됐다.

고드름은 기온이 영상·영하를 오르내리는 시기에 해빙과 재결빙 현상이 반복되면서 지붕 끝이나 옥의 배관 등에서 많이 형성된다. 또한 낙하시 충격량으로 인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의 우려가 있다.

출동한 소방대원은 고드름 제거와 함께 건물 관계자에게 고드름 발생 시 대처 방법과 신고 요령을 안내했다.

박덕규 전주완산소방서장은 "고드름은 기온 변화에 따라 갑자기 떨어질 수 있어 보행자 및 차량 운전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건물 관계자는 고드름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제거가 어려운 경우 무리하게 시도하지 말고 119로 신고해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렸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전인자였다.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제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